

2017년 하반기



해외출장 가이드

미국 뉴욕 출장자료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목 차 】

I. 현지 체류정보 01

1. 비자, 출입국 절차 및 유의사항
2. 기후
3. 시차/근무시간
4. 환전
5. 교통/통신
6. 주요 관광지

II. 미국 개황 12

1. 일반개황
2. 정부현황

III. 경제 무역 동향 16

1. 경제 동향
2. 교역 동향

IV. 무역관 안내 28



I. 현지 체류정보

1. 비자, 출입국 절차 및 유의사항

□ 비자

- 2008년 11월 17일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의 시행으로 한국 국민은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미국 체류가 가능해짐
- VWP를 통해 미국으로 무비자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방문의 목적이 단기 출장, 관광, 경유여야 함
- 또한 유효한 전자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전자여행 허가(ESTA) 승인을 받아야 함

□ 출입국 절차

- 입국절차
 - 미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안전청이 테러방지를 위해 긴급보안조치를 내리면서 2017년 10월부터 저가항공사를 이용해 미국 노선으로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국 탑승전 보안인터뷰에 응해야 함
 - 미국 공항 도착 후 입국 심사는 간단한 인터뷰 여권의 비자페이지에 스탬프를 찍고, 세관을 통과하면 완료
 - 입국 시 반드시 체제주소를 기입해야 하므로 출발 전 반드시 투숙 호텔이나 방문인사 주소를 휴대해야 함
 - 입국 심사대는 외국인 심사대와 미국 시민 심사대로 나뉘어져 있으며, 외국인 심사대에서는 인터뷰 및 얼굴 사진 촬영, 지문채취가 이루어짐
 - 수하물로 미국 반입이 불가능한 품목은 무기류, 마약, 허가 없이 반입되는 모든 고기류, 동물, 과일, 야채, 나무 등의 식물류 등이 있음(단, 어포류 등과 건조 김, 미역, 인삼 등은 신고만 하면 통관이 가능함)

<입국절차>

출국 전 보안인터뷰 → 입국심사 → 수하물 찾기 → 세관검사 & 동식물 검역 → 도착 로비

○ 출국절차

- 9.11 테러 이후 공항의 보안검색이 강화돼 출입국 시 벨트와 신발까지 벗어야 하며, 보디 스캐너를 통과해야함
- 미국의 대도시는 국제공항이 2개 이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발 전 공항을 미리 확인하고, 검색 시간이 길게 소요될 수 있어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좋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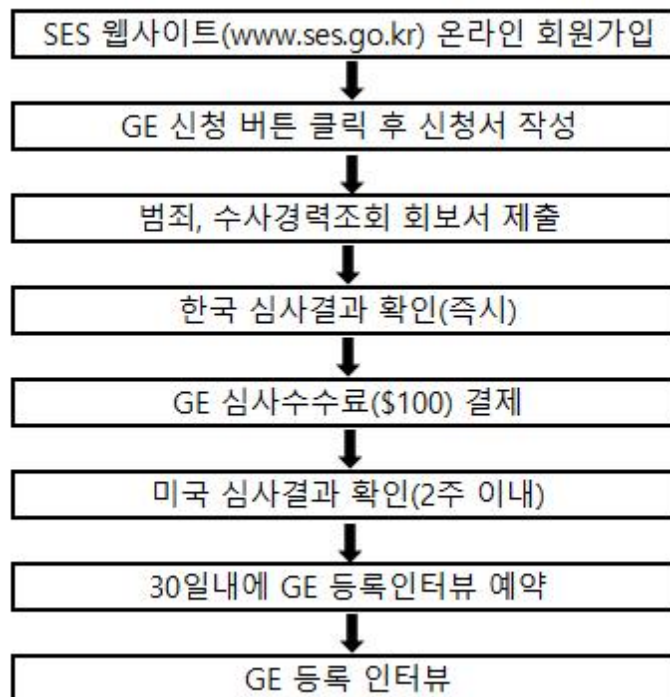
<출국절차>

탑승수속 & 출국수속 → 보안검사 → 탑승

○ 한미 상호 출입국 심사 시스템

- 2012년 6월 13일부터 미국 방문 시 방문자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미리 등록하면 출입국 심사대에서 직원의 대면 심사 없이 미국 출입이 가능해짐
- 무인 출입국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가 운영하는 자동 출입국 심사 서비스 홈페이지(www.ses.go.kr)에 들어가 본인이 서비스 신청을 한 후 미국 방문 시 해당 등록 센터에서 지문과 얼굴 사진을 등록하면 됨

<자동 출입국 신청/심사 절차>





2. 기후

☐ 서부 지방

-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와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시애틀(Seattle) 등이 위치한 서해안은 지중해성 기후 지역으로, 4~10월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고, 나머지 기간에도 비는 약간씩 내리지만 따뜻한 편이나 여름이라도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자켓이 필요할 수 있음

☐ 내륙 지방

- 라스베가스(Las Vegas) 등의 내륙 사막지대는 기온의 일교차와 연교차가 매우 심하고, 계절에 따라 30°C 이상의 일교차가 벌어지기도 함
- 로키 산맥(the Rockies) 지대는 산악지대이므로 봄이나 여름에는 기온이나 습도가 그다지 높지 않아 산을 넘기에 적당하나 겨울에는 눈이 항상 뒤덮여 있고 영하권을 유지함
- 5대호(Big 5 Lakes) 지방인 시카고, 디트로이트(Detroit) 등이 있는 5대호 지방은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로,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음

☐ 남부 지방

- 올랜도(Orlando), 마이애미(Miami) 등 유명 관광지가 위치한 플로리다(Florida)는 1년 내내 비가 많고 습하며, 특히 여름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함
- 현대, 기사, 금호타이어 등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조지아(Georgia)와 앨라배마(Alabama), 테네시(Tennessee)주는 사계절이 뚜렷하나 동부 지방에 비해 겨울이 온화하고 여름이 부더움

☐ 동부 지방

- 뉴욕(New York), 보스턴(Boston) 등 대도시가 위치한 동부 지방은 일반적으로 봄과 가을이 짧으며, 여름은 무덥고, 겨울은 눈이 많이 내림



<미국 주요 도시의 월별 평균 기온표(°섭씨)>

지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동부 뉴욕	1	2	6	12	17	22	25	24	20	14	9	3
동부 워싱턴	13	3	8	13	19	24	26	25	21	15	9	3
동부 마이애미	21	21	22	24	25	27	28	28	27	26	22	21
중부 시카고	-4	-3	3	9	15	21	24	23	19	12	4	-2
중부 덴버	-1	2	4	10	14	20	24	22	18	12	5	1
중부 휴스턴	12	14	17	21	25	28	29	29	27	23	17	13
서부 시애틀	5	7	8	11	14	17	19	19	16	12	8	6
서부 LA	13	13	15	17	19	20	23	23	22	20	17	14
서부 샌프란시스코	13	15	16	17	17	18	18	18	21	20	17	13

3. 시차/근무시간

□ 시차

- 미국 본토는 태평양 연안에서 동쪽으로 향해 태평양 표준시간(PACIFIC STANDDARDTIME: PST), 산악지대 표준시간(MOUNTAIN STANDARD TIME: MST), 중부 표준시간(CENTRAL STANDARD TIME: CST), 동부 표준시간(EASTERN STANDARD TIME: EST) 등 4개의 표준 시간이 있음
- 각 표준 시간대별 한국과의 차이
 - 서부(LA, PST): -17(일광 절약 시간 적용 시에는 -16)
 - 산악부(덴버, MST): -16(일광 절약 시간 적용 시에는 -15)
 - 중부(시카고, CST): -15(일광 절약 시간 적용 시에는 -14)
 - 동부(뉴욕, EST): -14(일광 절약 시간 적용 시에는 -13)

<2018~2020 미국 일광절약 시간 스케줄>

2018년	3월 11일	11월 4일
2019년	3월 10일	11월 3일
2020년	3월 8일	11월 1일



자료원: Time and Date

□ 근무시간

- 일반 직장의 근무시간은 기업별, 업종별로 근무 시간대가 다르나 보통 월~금요일 9:00~17:00 근무함
- 은행은 일반적으로 월~금요일(사무실 9:00~17:00, 창구 9:00~15:00)에 근무하며, 일부 대도시의 경우 토요일에도 근무함
- 관공서는 월~금요일 9:00~17:00 근무하며, 일부 관공서는 9:00~16:00까지 근무하기도 함

<2017년 연방공휴일 일정표>

월	일	공휴일	비고
1월	1일	New Year's Day	
	15일	Martin Luther King's Day	
2월	19일	President's Birthday	2월 셋째 월요일
5월	28일	Memorial Day	5월 마지막 월요일
7월	4일	Independence Day	
9월	3일	Labor Day	9월 첫째 월요일
10월	8일	Columbus Day	10월 둘째 월요일
11월	11일	Veterans Day	12일 대체 공휴일
	22일	Thanksgiving Day	11월 넷째 목요일
12월	25일	Christmas Day	

□ 출장 지양 기간

- 여름휴가철(매년 7~8월)과 연말 및 연시에는 많은 직장인들이 휴가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 사전약속이 꼭 필요함
- 특히 상당수 회사들이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새해까지 공휴일로 쉬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출장을 지양하고, 약속은 가급적 근무 시간 내에 하는 것을 추천함(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는 특별히 친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속을 잡지 않는 것이 비즈니스 매너임)



4. 환전

- 2017년 11월 기준 원달러 환율은 1,088.2원*

*자료원: e-나라지표

- 미국의 화폐 단위는 달러이며 지폐는 1·5·10·20·50·100달러 액권이 있으며, 주화는 페니(1센트), 니켈(5센트), 다임(10센트), 쿼터(25센트)가 사용됨
- 미국의 50달러와 100달러와 같은 고액 지폐는 소규모 상점에서 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환전할 경우 20달러권을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메트로 뉴욕 내 국제공항과 시내 환전소가 있으나 한국에서 환전해 달러화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함

<뉴욕내 주요 환전소>

환전	위치	문의
Uno Foreign Exchange	43 West 33rd St. New York, NY 10001	212-279-6150
Currency Exchange International	122 E 42nd ST, New York, NY 10168	212-972-6800
Currency Exchange International	812 Lexington Ave., New York, NY 10065	212-421-2220

5. 교통/통신

- 항공 직항 정보*

- (대한항공) 인천(10:00, 한국시간) → 뉴욕(10:00, 현지시간)
인천(19:30, 한국시간) → 뉴욕(19:30, 현지시간)
뉴욕(00:50, 현지시간) → 인천(05:15(+1일), 한국시간)
뉴욕(12:00, 현지시간) → 인천(16:25(+1일), 한국시간)
- (아시아나항공) 인천(10:50, 한국시간) → 뉴욕(10:50, 현지시간)
뉴욕(13:00, 현지시간) → 인천(17:30(+1일), 한국시간)

* 2017년 12월 기준, 일광절약제 시작 시 변경 가능성 있음



○ 교통안내

1) 지하철

- 스탠포아일랜드를 제외한 뉴욕시 4개 보로(맨해튼,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는 뉴욕시교통공사(MTA)의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음
- 스탠포아일랜드는 맨해튼과 오고는 페리가 맨해튼 다운타운에서 운행되며, 스탠포아일랜드 내에서의 이동은 MTA 스탠포아일랜드 레일웨이를 이용할 수 있음
- 특히 맨해튼은 교통체증이 심각해 맨해튼 내 이동은 지하철이 가장 편리하고 효과적임
- 지하철 운임은 거리에 상관없이 편도 2.75달러이며, 추가 지불 비용 없이 버스 환승이 가능함
- 지하철을 탑승할 때 사용하는 메트로카드는 지하철 역과 뉴욕 시내 델리, 마켓 등에서 구입이 가능함

2) 버스

- 맨해튼 버스는 북상하는 Uptown, 남하하는 Downtown, 동서로 달리는 Crosstown 세 종류로 구분
- Bus Stop/No Standing이라는 표지판이 버스정류장으로 도로의 주행방향 오른편에 위치
- 요금은 1회 2.75달러로 지하철과 같으며, 현금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미리 메트로카드를 미리 구입해야 편리함

3) 택시

- 뉴욕시의 상징인 Yellow Cab은 거리 병산제로 기본요금은 2.50달러, 0.2마일당 50센트 추가, 정차시간 60초당 50센트 추가, 퇴근시간(16:00~20:00) 1달러 할증, 심야시간(20:00~05:00) 50센트 할증 적용, 최종 가격에 10~15% 정도의 팁을 더해 지불하는것이 관례
- 최근에는 뉴욕 시내에서 Uber, Lyft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도 증가하고 있음



6. 주요 관광지

	자유의 여신상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자유의 여신상은 1886년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에서 제작되어 뉴욕의 리버티 섬에 세워짐. 자유의 여신상을 가까이서 관람하려면 맨해튼의 배터리 파크에서 페리를 타고 리버티 섬을 방문해야 함
	센트럴파크 뉴욕의 심장이라 불리는 센트럴 파크는 3.4km² 규모로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많이 등장해 해마다 2,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930년 완공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뉴욕을 상징하는 고층 빌딩으로 전망대에 올라가면 주변 지역의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특히 야경이 멋져 연인들의 프로포즈 장소로도 인기임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1871년 완공된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은 증기기관차 역으로 운영되었으나 환경 보호로 증기기관차 운영이 중단되면서, 1913년 현재의 모습으로 재탄생. 바로크 성당과 같이 화려한 모습과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그려놓은 아치형 천장을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가 됨
	5애비뉴 뉴욕의 대표적인 쇼핑 거리로 전 세계 유명 브



	랜드 매장이 늘어서 있음.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백화점과 의류 및 보석 매장들이 화려하게 장식한 쇼윈도가 볼거리
	록펠러센터 맨해튼 미드타운 중심에 있는 록펠러 센터는 19개의 빌딩으로 이루어진 복합 단지로 명칭은 1928년 콜롬비아 대학으로부터 이곳을 임대한 억만장자 존 록펠러의 이름에서 따왔음. 49스트리트와 50스트리트 사이의 로어플라자(Lower Plaza)에 있는 실외 아이스링크는 록펠러 센터의 트레이드 마크이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곳에 세워지는 거대한 트리는 최고의 볼거리를 제공함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 극장가와 화려한 네온사인, 거리의 공연으로 가득한 타임스퀘어는 뉴욕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뉴욕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이기도 함
	뉴욕공립도서관 뉴욕공립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은 세계 5대 도서관 중 하나로 건축학적으로 아름다움 뿐 아니라 희귀본을 포함한 수많은 도서를 소장하고 있음. ‘인내와 불굴’이라는 이름의



	대리석 사자상이 이곳을 상징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 대리석 계단에 걸터앉아 휴식을 취함. 맞은편에 위치한 브라이언트 파크는 도식속의 휴식처로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짐
	UN본부 UN본부에는 세계 각국의 정부 대표단이 업무를 보고 있으며 건물 내부에는 회원국들이 기증한 예술 작품들로 꾸며져 있음. 매일 가이드가 이곳에서 관광객을 이끌고 각공 회의실과 총회의장 등 UN본부 내부 곳곳을 관람시켜줌
	월스트리트 세계 금융의 중심인 월스트리트는 연방준비은행, 증권거래소,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수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음
	황소동상 월스트리트와 브로드웨이가 만나는 곳에 있는 청동 황소 조각은 월스트리트의 마스코트임
	그라운드 제로 9.11 테러로 무너진 세계무역센터가 있던 자리



로 현재는 테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거대한 두 개의 폭포로 구성되어 있음



차이나타운

뉴욕의 차이나타운은 세계 여러 차이나타운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곳 중 하나임. 이 곳의 중식당을 찾기 위한 많은 방문객들이 붐비며 리틀 이태리가 인접해 있어 이태리 문화도 체험할 수 있음



II. 미국 개황

1. 일반개황

국명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위치	미주대륙 북부
면적	9,372,610km ² (농지 47%, 산지 29% / 한반도의 약 42배, 남한의 95배)
기후	남부 플로리다의 아열대로부터 하와이의 열대, 북부 알래스카의 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후 조건
수도	워싱턴 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인구	3억 2,645만 9,687명(2017년12월 19일 기준)
주요도시 및 인구	뉴욕(854만), 로스앤젤레스(3938만), 시카고(270만), 휴스턴(230만), 피닉스(162만), 필라델피아(157만), 샌안토니오(149만), 샌디에이고(141만), 달라스(132만), 산호세(103만), 오스틴(95만), 잭슨빌(88만), 샌프란시스코(87만), 콜럼버스(86만), 인디애나폴리스(86만)
민족	백인(76.9%), 흑인(13.3%), 아메리카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1.3%), 아시아인(5.7%), 하와이 원주민/기타 태평양 섬주민(0.2%), 2개이상 인종(2.6%)
언어	영어(일부 지역은 스페인어도 통용)
종교	기독교/가톨릭(70.6%), 유대교(1.9%), 불교(0.7%), 이슬람(0.9%), 힌두교(0.7%), 토착신앙(0.3%), 기타(1.5%), 무교(22.8%)
건국(독립)일	1776. 7. 4 (13개 주 독립선언일)
정부형태	대통령제
국가원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취임일 : 2017년 1월 20일)



2. 정부현황

□ 연방의회

○ 상원(The Senate)

- 상원은 1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별 대표성을 고려해 미국 내 50개의 주에서 2명씩 선출됨
- 상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2년 마다 실시되는 선거에서 3분의 1을 다시 선출
- 미국 헌법은 부통령이 상원의장(President)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대에는 부통령의 상원의장 직을 대행하는 임시의장(President pro tempore)이 상원 회의를 주재함
- 부통령 : 마이클 펜스(Mike Pence)
- 임시의장 : 오린 해치(Orrin Hatch) 상원 금융위원장

○ 하원(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하원은 43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구비례에 따라 의석수가 배정됨
- 하원 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매 2년마다 실시되는 선거에서 하원의원 전원이 다시 선출됨
- 하원의장은 하원업무를 총괄·감독하고 공식적으로 하원을 대표하며, 입법부를 대표한다고 여겨지고 있음
- 하원의장 : 폴 라이언(Paul Ryan)

○ 위원회

- 위원회(committee)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심사, 조사, 수정을 담당하는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의원들은 보통 복수의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소속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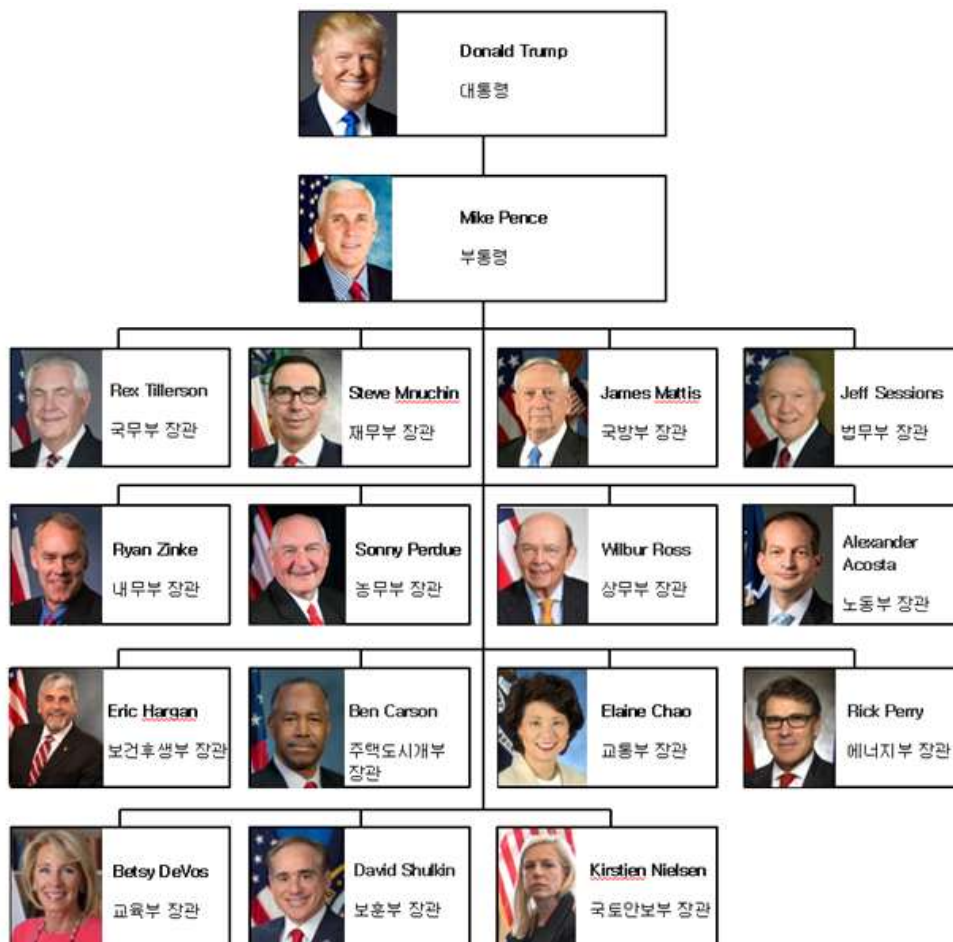
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	의회의 정책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 입안된 법안을 고려하고 수정해 본 회의에 정식 법안으로 제출
특별위원회 (Special or Select committee)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로서 조사, 연구 및 특별 정책을 고안
합동위원회 (Joint Committee)	양원 합동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연구 및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
양원협의회 (Conference Committee)	상·하원에서 각각 통과시킨 법안이 상이할 경우 세부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구성
전체위원회 (Committee of the Whole)	하원의원 100명으로 구성돼 주요 논쟁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

□ 대통령과 행정부

○ 행정부

- 행정부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
- 행정부 조직은 현재 아래와 같이 15개의 부처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부처의 장관은 Secretary라 불리며 법무장관은 Attorney General으로 불림

<미국 행정부 구성>



○ 대통령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amp)

-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1회 연임은 가능하나 3선은 금지돼 있으며 국민투표를 통해 각 주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됨
-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며 군 통수권, 법률안 거부권, 조약체결권, 외교권, 장관 등 고위 공무원 임명권, 특사권 등과 같은 막강한 권한을 보유

□ 사법부

- 사법부는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기관으로 연방국가인 미국의 사법부는 연방법원과 주 법원으로 구분됨
 - 연방법원은 주로 연방헌법 및 연방법 하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서로 다른 주 사이에서 발생하는 민사소송(청구액 5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도 개입할 수 있음
 - 미국의 법원은 1개의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 13개의 항소법원(Court of Appeals), 94개의 지방법원(District Courts)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을 포함한 6개의 특별법원도 별도로 두고 있음
-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
 - 대법원장을 포함한 9인의 판사로 구성돼 있는 미국의 최종 상고법원이자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역할도 맡고 있음
 - 연방대법원은 연방지방법원, 연방항소법원, 특별법원으로부터의 상소사건을 심리하는 것 외에 주 최고법원으로부터의 상소도 심리하며 행정, 입법 행위에 대한 위헌 심사권도 보유
- 연방항소법원(Court of Appeals)
 - 주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된 사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며 연방통신위원회 등 특정 행정기관이 낸 명령의 효력에 관한 소송도 관장함
 -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혹은 주 최고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사건 중 연방헌법이나 연방 법률에 관련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한쪽 당사자의 청원에 의해 상고청원(Petition for Certiorari)을 하게 되고, 적어도 4명의 대법관에 의해 상고허가(Writ of Certiorari)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심판(연간 약 120건 정도)
 - 3권 분립원칙에 의거, '소송과 분쟁이 있을 경우에만' 재판권을 행사하며, 정치적 사안(political question)일 경우에는 행정부나 입법부의 권위를 존중해 재판권을 불행사
 - 단, 재판 당사자들의 법적 권리의 한계를 정해주는 '선언적재판(Declaratory Action)'에는 재판권을 행사함



III. 경제 무역 동향

1. 경제 동향

지표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경제성장률	%	1.7	2.6	2.9	1.5	3.3
1인당 실질 GDP	US\$	49,316	50,215	51,258	51,690	52,685
명목 GDP	US\$십억	16,691.50	17,427.60	18,120.70	18,624.50	19,509.00
정부부채/GDP	%	101	102.1	101.2	105.3	105
소비자물가 상승률	%	1.5	0.7	0.7	2.1	2.2
민간소비증가율	%	1.5	2.9	3.6	2.7	2.3
종합주가지수	다우지수	16,576.70	17,823.10	17,425.00	19,762.60	24,792.20
실업률	%	7.4	6.2	5.3	4.9	4.4
수출 (상품 및 서비스)	US\$십억	2,293.50	2,375.90	2,263.90	2,208.10	1,735.30
수입 (상품 및 서비스)	US\$십억	2,755.30	2,866.20	2,764.40	2,712.90	2,149.50
대외의존도	%	30.2	30.1	27.8	26.5	—
무역수지	US\$십억	-462	-490	-500	-505	-414
민간투자증가율	%	6.1	5.5	5.2	-1.6	7.3
외국인투자금액 (FDI position)	US\$백만	2,727,825	2,945,795	3,303,586	3,725,418	N/A
총외채 (Gross Federal Debt)	US\$십억	16,719	17,794	18,120	19,539	20,354
외환보유고	US\$백만	145,740	132,221	118,457	114,671	121,240
이자율 (Federal Fund Rate)	%	0~0.25	0~0.25	0.25~0.5 0	0.50~0.5	1.00~1.2 5
평균 환율	US\$원	1,095.04	1,053.22	1,131.49	1,160.50	1,138.65

주: 1)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민간투자증가율은 전기대비 연율 기준, 2) 2017년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민간투자 증가율, 1인당 실질 GDP, 명목 GDP, 정부부채(Total Public Debt)/GDP는 3분기 기준, 3) 총외채는 회계연도(9월 말 기준), 2017 년은 전망치, 4)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도말(12월) 기준 전년 대비 증가율, 2017년은 11월 말 기준, 5) 종합주가지수는 연도말 종가 기준, 2017년은 12월 18일 종가 기준, 6) 실업률은 연평균, 2017년은 11월까지 평균, 7) 2017년 수입, 수출, 무역수지는 3분기까지 실적, 8) 대외의존도는 명목 GDP에서 수출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9) 외환보유고는 연도말 기준, 2017년은 11월 17일 기준, 10) 2017년 환율(평균)은 6월까지 평균, 11) 작성기준일 2017년 12월 19일

자료원: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백악관 예산처(OMB), 美 노동부, 美 재무부, 한국은행, 월드뱅크

□ 주요 지표별 동향

○ 경기 : 견조한 성장세 지속

- 2017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3.3%로 2개 분기 연속 3%를 넘는 성장세를 보였으며 2014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민간투자(7.3%) 개선이 경제성장률 추가 상승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반면 실질 소비는 전기(3.3%) 대비 다소 낮아진 2.3% 증가를 나타냄
- 개인소비지출은 연초 따뜻한 날씨에 따른 에너지 수요 둔화, 소득세 환급 지연 등 일시적 요인으로 부진했으나 고용 및 경제심리 호조 등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함. 3분기 개인소비지출은 '하비'와 '어마 등 연쇄 허리케인의 여파로 전 분기 대비 감소
-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2017년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 민간투자는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연속 증가함. 3분기 미국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10.4% 증가해 3년간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반면 비거주용 구조물 투자는 6.8% 감소해 2015년 4분기 이후 가장 크게 감소
- 2017년 하반기 미국의 산업생산은 7월과 8월 각각 0.1%, 0.4% 감소했으나 9월 0.3% 증가로 반등한 이후 증가세를 유지
- ISM 제조업지수는 8월 허리케인에 따른 생산활동 차질이 완화되면서 9월 2005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한 이후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미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지표	2016					2017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실질 GDP 성장률	1.5	0.6	2.2	2.8	1.8	1.2	3.1	3.3
소비(실질 증감률)	2.7	1.8	3.8	2.8	2.9	1.9	3.3	2.3
- 소비자신뢰지수	91.8	91.6	92.4	90.3	93.1	97.2	96.4	95.1
민간투자 증감률	-1.6	-4	-2.7	2.4	8.5	-1.2	3.9	7.3
산업생산 증감률	-1.2	-0.3	-0.2	-0.2	0.2	0.4	1.4	-0.2
- ISM 제조업지수	51.4	51.5	50.0	51.5	51.1	57.0	55.8	5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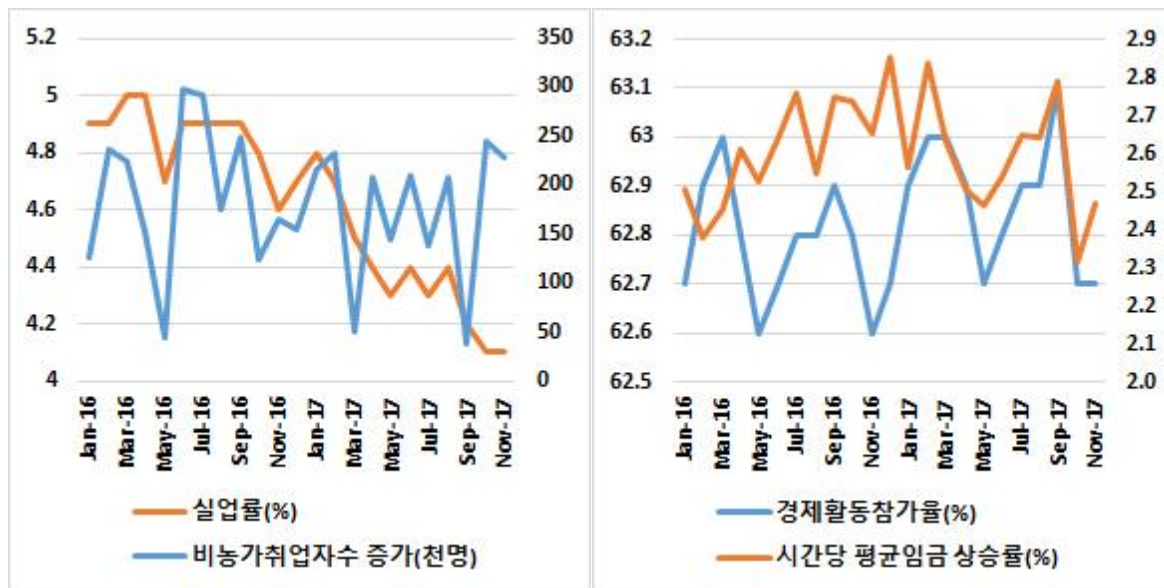
주: 1) 분기는 전기비 연율 또는 월평균(지수), 2) 소비자신뢰지수는 컨퍼런스보드 기준

자료원 : 미국 상무부, 컨퍼런스보드, 미국 공급관리협회, 한국은행, KDI

○ 고용 : 호조 지속

- 실업률은 10월과 11월 2000년 12월(3.9%) 이후 최저 수준인 4.1%를 기록
비농업 전체 취업자 수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경제활동참가율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시간당 평균 임금도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

<미국 고용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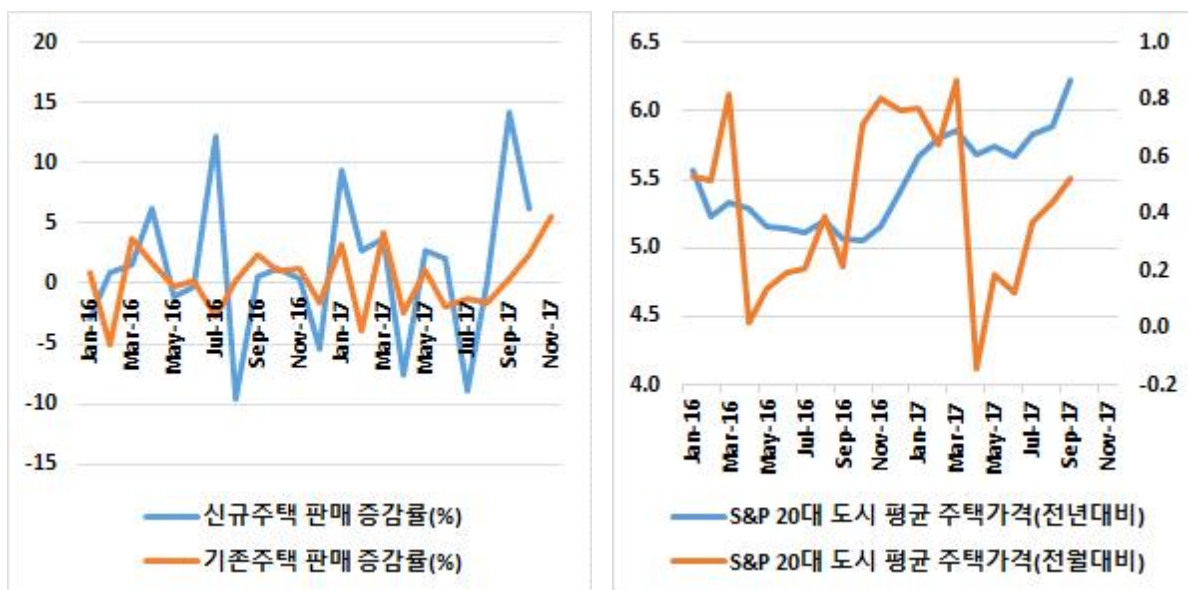
주: 1) 실업률과 비농가 취업자 수 증가는 전기 대비, 2)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원 : 미 노동부, KDI

○ 주택시장 : 회복기조 유지

- 2017년 11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비 5.6% 증가한 581만채로 2006년 1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
- 2017년 10월 신규주택 판매량도 전월 대비 6.2% 증가한 8만 5천 건으로 석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2007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
- 20대 주요 도시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6% 전후의 상승을 지속하며 미국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세를 나타냄

<미국 주요 주택시장지표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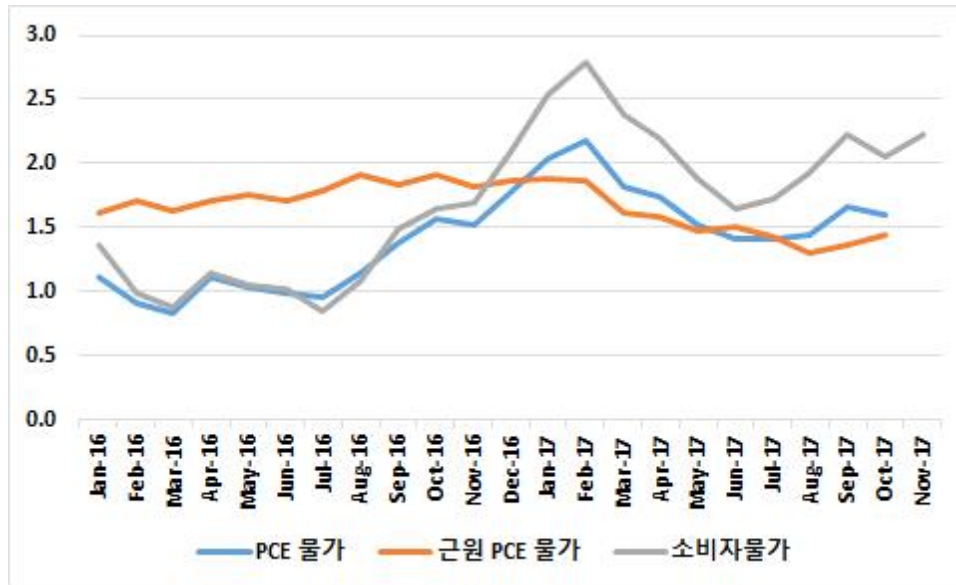


자료원 : 전미부동산업자협회, 미 통계청, S&P, KDI, 한국은행

○ 물가 : 낮은 상승세 지속

-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은 2017년 이후 상승폭이 하락하였으며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 상승률도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밑돌고 있음
- 소비자 물가지수도 상승을 지속하고 있으나 오름폭은 다소 둔화됨

<미국 물가지표 추이>



자료원 : 미 연방준비은행, 미 노동청, 전년 동월대비

□ 향후 경제 전망

- 글로벌경제 회복, 양호한, 경제 심리, 금융시장 개선 등의 영향으로 2018년 미국 경제는 2017년 보다 확대된 약 2.5%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실업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에 근접한 가운데 내년 감세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 등으로 소비지출 증가가 2018년에도 이어 질 것으로 기대
- 2017년 들어 민간소비 증대와 더불어 달러 약세에 힘입어 기업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도 내년 경제 전망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 신호가 연준의 금리인상, 자산축소 정책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연준의 자산축소 정책은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수출 및 기업투자 증가 폭을 위축시킬 것
-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2018년 미국 경제성장을 제한할 전망
- 2018년 금리는 내년 2~3차례 인상이 예상되나 향후 근원인플레이션율의 향방이 큰 영향을 미칠 전망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구분	2017년	2018년
IMF	2.2	2.3
World Bank	2.1	2.2
OECD	2.2	2.5
Federal Reserve	2.4-2.5	2.2-2.6
Barclays Capital	2.3	2.2
BNP Paribas	2.3	2.9
BoA-Merrill Lynch	2.2	2.4
Citi	2.3	2.7
Credit Suisse	2.3	2.7
Goldman Sachs	2.3	2.5
JP Morgan	2.3	2.3
Nomura	2.2	2.5
UBS	2.2	2.3
투자은행 평균	2.3	2.5

주 : 전기대비 연율 기준

자료원 : 국제금융센터, 각 기관 및 언론보도



2. 교역 동향

(1) 미국 교역 동향

□ 연도별 수출입 현황

- 지난해 미국 무역수지 적자는 총 7354억6200만 달러로 전년비 1.37% 감소했음
- 2017년 10월 기준 미국의 무역적자는 6,601억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대비 8.0% 증가했음

<미국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1~10월)
수출	1,578,516	1,621,171	1,502,572	1,453,720	1,275,029
수입	2,267,986	2,356,365	2,248,232	2,189,182	1,935,129
무역수지	-689,469	-735,193	-745,660	-735,462	-660,100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주요 수출 품목 및 수출 대상국(2017년 1~10월 기준)

- 2016년 미국의 상품 수출은 1조 4,51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3.4% 감소를 기록했지만, 2017년 1~10월에는 달러 약세 등의 영향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1% 증가했음
- 5대 수출 품목 중 항공 및 우주 제품의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3.6%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4개 품목은 수출이 늘었음
 - 특히 유류 및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46.5%의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음
 - 이밖에 기계류(4.6%), 전기·전자기기(3.87%), 자동차 및 부품(3.4%)도 증가했음

<주요 수출 품목('17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총 수출액 대비 품목별 수출 비중
1	기계류	166,344	13.05
2	전기·전자기기	143,649	11.27
3	항공 및 우주	107,388	8.42
4	자동차 및 부품	108,393	8.50
5	유류 및 석유화학	110,077	8.63
총 수출액		1,275,029	100.00

주: 통계는 2017년 1~10월 누적치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미국 10대 수출국이 전체 수출 시장의 64.5%를 차지하며, 상위 3개국인 캐나다, 멕시코, 영국은 전체의 42.4%에 달했음
- 특이점은 캐나다의 수출 비중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1~10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4.5% 감소했음
- 10대 수출국 가운데 일본(1.4% 증가)만 제외하고 모든 국가의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줄었음
- 미국의 대한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3% 감소했음

<주요 수출국('17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금액	총 수출액 대비 국가별 수출 비중
1	캐나다	234,066	18.4
2	멕시코	201,599	15.8
3	중국	103,982	8.2
4	일본	55,489	4.4
5	영국	46,714	3.7
6	독일	44,132	3.5
7	한국	39,888	3.1
8	네덜란드	35,220	2.8
9	홍콩	33,126	2.6
10	벨기에	25,166	2.0
합계		819,382	64.5

주: 통계는 2017년 1~10월 누적치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주요 수입 품목 및 수입 대상국(2017년 1~10월 기준)

- 미국의 5대 수입 품목이 전체 수입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함
- 미국의 경기 확장과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5대 수입 품목은 대체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수입이 늘었음
- 2017년 1~10월 미국의 최대 수입 품목은 기계류와 전기·전자기기로 두 품목은 전년 동기대비 수입이 각각 4.9%와 9.9% 증가했음
- 그 외 자동차 및 부품, 유류 및 석유화학품, 의약품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유류 및 석유화학품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수입이 29.3% 증가해 5대 품목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임

<주요 수입 품목('17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총 수입액 대비 품목별 수입 비중
1	전기전자기기	284,379	14.7
2	기계류	281,838	14.6
3	자동차 및 부품	239,166	12.4
4	유류 및 석유화학	161,382	8.3
5	의약품	78,961	4.1
총 수입액		1,935,129	100.00

주: 통계는 2017년 1~10월 누적치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중국은 지난 2017년(1~10월)에도 미국 전체 수입의 20%이상을 차지하며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지켜가고 있음
 - 중국은 2005년 캐나다를 제치고 수입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가 다음해 캐나다에게 다시 1위 자리를 내준 이후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위를 지킴
- 그 외 멕시코를 포함한 9개 국가가 미국 전체 수입의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수입은 2014년에는 8위로 전체 수입의 2%를 차지했으나 유가 하락으로 2016년 전체 수입의 0.77%에 지나지 않아 10대 수입국에서 제외됐음
 - 한국은 수입액 596억9500만 달러로 6위에 랭크됐음

<주요 수입국('17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금액	총 수입액 대비 국가별 수입 비중
1	중국	412,971	21.3
2	멕시코	261,303	13.5
3	캐나다	248,388	12.8
4	일본	113,054	5.8
5	독일	96,893	5.0
6	한국	59,695	3.1
7	영국	43,762	2.3
8	인도	40,988	2.1
9	이탈리아	40,302	2.1
10	아일랜드	40,121	2.1
합계		1,357,477	70.1

주: 통계는 2017년 1~10월 누적치

자료원: World Trade Atlas



(2) 우리나라와의 무역 동향

□ 연도별 교역동향

- 2011년 이후 한국의 대미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왔으나 2015년 이후 감소세로 반전
 - 하지만 2017년(1~10월 누적치 기준) 대미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5% 늘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
- 동 기간 대미 수입은 증감을 반복했으나 2017년 들어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함
 -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부터 2년 연속 대미 수입액은 감소했으나 2014년 반전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음
 - 하지만 2017년(1~10월 누적치 기준) 대미 수입은 무려 33.6% 증가했음
-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꾸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2015년 들어 증가폭이 둔화되었다가 2016년 감소세로 반전
 - 2017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2011~2017 한-미 교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1~10월)
수출	58,524	62,052	70,284	69,832	66,462	56,942
수출증감율	4.12	6.03	13.27	-0.64	-4.83	3.5
수입	43,340	41,511	45,283	44,024	43,215	42,176
수입증감율	-2.76	-4.22	9.08	-2.78	-1.84	33.6
무역수지	15,183	20,540	25,001	25,807	23,246	14,765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주요 수출입 품목(2017년 1~10월 기준)

- 2017년 1~10월까지 대미 수출품목 중 1위를 차지한 제품은 '자동차 및 부품'임
 - 2016년 수출액은 219억 달러, 2017년에는 1~10월까지 수출액은 총 165억



달러로 집계됨

- 경기침체 후 미국의 경기확장, 한미 FTA를 통한 관세혜택, 미국 내 한국차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미국 내 수입 수요도 증가해왔음
 -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및 미국의 자동차 판매 성장 둔화 등은 향후 해당 품목의 수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됨
- 10대 대미 수출품 가운데 가장 많은 수출 증가율을 보인 제품은 철강의 제품으로 전년 동기대비 54.8%의 성장률을 기록함
- 이밖에 광물성연료와 광유물(36.1%), 기계류 및 부품(26.3%), 플라스틱 및 그 제품(14.6%)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임
 - 반면 자동차 및 부품(-6.4%), 전기기기와 부품(-12.6%), 고무와 그 제품(-2.1%), 철강(-22.5%), 렌즈 및 디스플레이류(-2.9%), 유기화학품(-0.3%)은 수출이 감소했음
- 한국의 주요 대미 수입품목 중 1위를 차지한 품목은 '기계류 및 부품'으로 2017년 1~10월까지 총 81억7,500만 달러를 수입했음
- 2016년 동 품목의 대미 수입액은 67억7300만 달러로 2017년 1~10월 누적 수입액이 전년도 전체 수입액을 이미 뛰어넘음
- 2017년 10월 기준 대미 수입액 상위 10개 품목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품목은 '광물성연료, 광물류 등'임
- 동 품목은 전년대비 무려 138.2% 증가한 34억5,836만 달러를 기록했음
 - 그 다음으로 수입액이 증가한 품목으로는 '기계류 및 부품'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9.2% 증가한 81억7,568만 달러를 기록했음
 - 이밖에 렌즈 및 디스플레이류(26.9%), 전기기기와 부품(11.8%) 등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음
- 대미 수입 감소 품목 1위는 철강(12.4% 감소), 2위는 자동차 및 부품(1.5% 감소) 등이 있음



<양국 간 주요 수출입 품목 ('17년)>

(단위: 백만 달러)

한국의 수출			한국의 수입		
순위	품목	금액	순위	품목	금액
1	자동차 및 부품	16,496	1	기계류 및 부품	8,175
2	전기기기와 부품	11,574	2	전기기기와 부품	5,931
3	기계류 및 부품	10,253	3	렌즈·디스플레이류	3,556
4	광물성연료, 광유물 등	2,760	4	광물성연료, 광유물 등	3,458
5	철강제품	2,215	5	자동차 및 부품	1,743
6	플라스틱 및 그 제품	2,040	6	유기 화합품	1,432
7	고무와 그 제품	1,492	7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281
8	철강	1,152	8	철강의 제품	468
9	렌즈·디스플레이류	1,053	9	철강	244
10	유기 화합품	829	10	고무와 그 제품	220
합계		49,864	합계		26,508

주: 통계는 2017년 1~10월 누적치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IV. 무역관 안내

□ 뉴욕무역관 개요

- 뉴욕무역관은 1962년 11월 16일 개설 이래 미국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을 포함한 미 북동부 지역에 대한 무역통상 및 투자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
 - (주요 업무1)미 북동부 지역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지사화사업, 시장개척단 지원, 전시회 참가, 인콰이어리 발굴, UN 조달, 글로벌 기업과 협력사업 등)
 - (주요 업무2)투자유치 활동(투자유치 프로젝트 발굴, 투자유치당 방문 지원, 한국 투자환경 홍보활동 등) 및 미국 경제 및 시장 전반에 대한 정보조사 수행
- 뉴욕무역관 관할지역 및 주요 도시
 - 뉴욕주: 뉴욕, 알바니
 - 뉴저지주: 뉴악, 트렌튼
 -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 코네티컷주: 뉴헤이븐
 -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 기타 관할주: 메인, 뉴햄프셔, 버몬트, 로드아일랜드, 브리티시 버뮤다

*투자유치(FDI Inbound)는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도 포함

□ 위치 및 연락처

- 뉴욕무역관 주소
 - 460 Park Avenue, 14th Floor, New York, NY 10022
 - 맨해튼 57th Street과 Park Avenue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JFK공항에서 북서쪽으로 약 15마일 정도 떨어져 있음
- 오시는 길
 - (지하철 이용시) 4, 5, 6 트레인 59St역 하차, E,M 트레인 5Av/53St역 하차, F 트레인 Lexington Av/63St역 하차, N,Q,R 트레인 Lexington Av/59St역



하차

- (버스 이용시) QM21, X10, X10B, X17, X17J, X63, X64, X68, X31, M101, M103, Q32

○ 연락처

- 전화: 212-826-0900
- 팩스: 212-888-4930
- 이메일: kotrany@hotmail.com

<뉴욕무역관 위치>





www.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